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FAR EAST · CIS

극동·CIS 물류 시황 분석

보고기간 10/12~10/18

1. 러시아-미국 디젤 거래 재개와 러시아 에너지 수출 물류 영향

2. 중간회랑 물류 인프라 확장: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 및 악타우 항만 개발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42

종합

이번 주 극동 권역은 러시아발 에너지 물류 재편과 유라시아 물류 인프라 확장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두드러졌다. 러시아-미국 디젤 거래 재개로 러시아산 에너지의 서방 시장 유입 경로가 일부 복원됐고, 중간회랑의 병목 구간이 해소되며 유라시아 내 육상 운송망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러시아-미국 디젤 거래 재개는 제재 완화 국면에서 러시아 에너지 기업과 물류 부문에 단기적 수혜를 주지만, 미국 내 에너지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반면, 중간회랑의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와 악타우 항만 확장은 러시아를 우회하는 물류 경로의 신뢰성을 높여 향후 유라시아 화물 수송 구조의 다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미국 디젤 거래 재개와 러시아 에너지 수출 물류 영향

> **트럼프 행정부의 러시아 제재 면제와 디젤 공급 합의로 러시아산 디젤의 미국 및 글로벌 시장 유입이 재개되며, 러시아 석유 기업과 물류 부문에 단기적 수혜가 예상되나 미국 내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가스 구매에 대한 제재와 관세를 국가이익을 이유로 면제한 데 이어, 러시아가 디젤 30만 톤을 즉시 공급하고 11월 50만 톤, 이후 매월 100만 톤을 공급하는 거래가 성사됨. 러시아 노박 부총리는 국영 통신 타스를 통해 해당 거래가 경제에 긍정적 신호라며 미국 시장으로의 직접 수출을 포함한 공급 계약이 체결 중이라고 밝힘.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러시아발 에너지 수출의 대서양 횡단 물동량이 부분적으로 복원될 가능성이 커짐.

거래 배경으로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글로벌 디젤 수출이 전년 대비 10% 감소하고 미국 내 디젤 가격이 갤런당 6.179달러로 약 70% 급등한 상황에서, 미국 정유 시설은 이미 최대 가동률에 근접해 해외 공급 확대가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했음.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정유 시설이 타격을 입었으나 전쟁 전 생산량은 국내 수요의 두 배에 달했고, 저장 용량 부족으로 회색 수출을 방치해 온 실정임. 독일 카네기 센터의 바쿨렌코 분석가는 러시아가 7~9월 간 최소 160만 톤의 디젤을 해상으로 수출했다며, 11월 물량 50만 톤은 기존 회색 수출을 합법화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함.

이번 거래가 글로벌 디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임. 러시아가 공급하기로 한 50만 톤은 미국 월간 소비량의 약 4%, 글로벌 월간 소비량의 0.4%에 불과하며, 추정 월 400만 톤의 글로벌 부족분 중 약 13%를 메우는 데 그침. 따라서 미국 내 디젤 가격 하락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됨. 반면 러시아 석유 기업들은 제재 완화에 따른 수출 물량 확대와 가격 프리미엄 획득으로 수혜가 예상되며, 러시아 정부는 유전 개발과 정제 시설 가동률 회복,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됨.

물류 측면에서는 러시아산 디젤의 미국 직수출 재개로 흑해·발트해 항만에서 북미행 탱커 수요가 증가할 전망임. 러시아는 2026년 말까지 월간 디젤 수출을 350만 톤으로 회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수에즈 운하 통과 물동량과 유럽 환적 물류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 다만 미국의 대러 제재 전면 해제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유럽 동맹국의 반발과 국제 유가 변동성 등이 러시아 에너지 물류 회복의 변수로 작용할 것임.

- 러시아 디젤 50만 톤은 미국 월간 소비량의 약 4%, 글로벌 월간 소비량의 0.4% 수준
- 미국 디젤 가격 갤런당 6.179달러로 전년 대비 약 70% 급등
- 러시아의 9월 디젤 선적량 약 42만 7천 톤으로, 전쟁 전 월 300만 톤에서 급감
- 러시아는 2026년 말까지 월간 디젤 수출 350만 톤,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회복 목표
- 7~9월 러시아의 해상 디젤 수출은 최소 160만 톤으로, 회색 수출이 상당 부분 차지

전망

러시아발 디젤의 미국 및 글로벌 시장 유입은 단기적으로 탱커 수요와 러시아 정유사 수익에 긍정적이나, 공급 물량 확대가 글로벌 가격 안정에 기여하기에는 역부족일 전망임. 미국의 제재 면제 범위와 유럽의 대응에 따라 거래의 지속 가능성이 결정될 것이며, 러시아의 정제 시설 복구 속도도 변수로 작용함. 중장기적으로는 러시아 에너지 수출 물류의 북미 항로 재편 가능성이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변동성이 상존함.

시사점

화주 — 러시아산 디젤 수출 재개로 연료 공급원이 다변화되어 글로벌 시장 조달 여건이 개선될 수 있으나, 가격 하락 효과는 제한적이므로 단기적으로 운송비 절감 기대는 낮춰야 함.

포워더 — 러시아발 북미행 탱커 및 육상 수송 수요 증가에 대비해 러시아 항만 인근 물류 네트워크와 제재 컴플라이언스 검토가 필요함.

항만·선사 — 흑해·발트해 항만에서 대형 탱커 유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제재 대상 화물 취급 여부에 대한 실사와 보험 부보 여부 확인이 중요함.

참고자료: The Moscow Times, Trump Signs Order Exempting Russia From New Sanctions Legislation · The Moscow Times, 트럼프발 러시아 디젤 거래…러 정유사 수혜 전망 · The Moscow Times, Moscow Hails Trump Diesel Deal, Promises Direct Exports to U.S. (검색일: 2026-10-18)

중간회랑 물류 인프라 확장: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 및 악타우 항만 개발

> **카스피해 횡단 중간회랑(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Route)의 핵심 병목이던 바쿠-트빌리시-카르스(BTK) 철도와 악타우 항만의 처리 능력이 대폭 확장되며 유라시아 화물 운송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BTK 철도는 조지아 구간 현대화 공사 완료 후 2024년 6월 재개통됐다. 이번 공사로 연간 화물 수송 능력이 기존 100만 톤에서 500만 톤으로 5배 증가했고, 신규 선로 30.3km 건설과 기존 시설 153.1km 복구, 바퀴 교환 시설 신설 등이 이뤄졌다. 이는 중간회랑 육상 구간의 대표적 병목 구간이 해소됐음을 의미한다.

카자흐스탄은 악타우 항만 준설 공사에 착수했다. 약 130만m³의 토사를 제거해 수심을 6~7m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6년 말 완공 예정이다. 카스피해 수위 하락에 따른 항행 여건 악화에 대응하는 조치이며, 완료 시 중간회랑 화물 처리 능력 30% 향상과 해상 운송 비용 10~15% 절감이 기대된다.

중간회랑 물동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4년 1~5월 중국~유럽 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1~8월에는 KTZ 기준 4만4000TEU로 58% 급증했다. 이러한 성장은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부 육상 노선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회하려는 화주 수요와 중앙아시아 및 캅카스 국가들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에 기인한다.

BTK 철도와 악타우 항만의 능력 확대는 중간회랑 전체의 정시성과 효율성을 높여 해상 운송 대비 시간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는 유럽-중국 간 화물의 일부가 기존 해상 노선에서 중간회랑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높이며, 카자흐스탄의 환적 허브 지위를 강화할 전망이다.

- BTK 철도 연간 수송 능력 100만 톤 → 500만 톤 (5배 증가)
- 악타우 항만 준설로 수심 6~7m 확보, 2026년 말 완공 예정
- 중간회랑 2024년 1~8월 컨테이너 물동량 4만4000TEU, 전년 대비 58% 증가
- 카자흐스탄, 중간회랑 연간 물동량을 2028년까지 600만 톤에서 1000만 톤으로 확대 목표
- 공동 운영사 Middle Corridor Multimodal Ltd. 설립으로 통합 운영 체계 구축

전망

BTK 철도와 악타우 항만 증설로 중간회랑의 수송 능력이 단기적으로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물동량을 소화하려면 선박 확충, 터미널 자동화, 카스피해 횡단 구간의 운항 안정성 확보 등 추가 병목 해소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북부 육상 경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중간회랑의 연평균 성장률은 두 자릿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시사점

화주 — 중국-유럽 간 운송 시 해상보다 짧은 리드타임을 제공하는 중간회랑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확대된다.

포워더 — 중간회랑 통합 물류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해 카스피해 횡단 구간의 해상-철도 연계 상품 개발이 요구된다.

항만·선사 — 악타우 항만 증심 및 바쿠 신항과의 연계 강화로 카스피해 페리·피더 선대 확충 투자 기회가 발생한다.

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 정부 — 환적 화물 유치를 위한 통관·운임 제도 개선과 국제 투자 유치가 물동량 목표 달성의 관건이 된다.

참고자료: Transport Corridors,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 재개통…화물 용량 연 500만톤으로 · PortNews EN, 카스피해 악타우 항만 준설 착수…중간회랑 화물 30% 증대 추진 · Transport Corridors, 카자흐,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 개통…물동량 증가 전망 · Transport Corridors, 중간회랑 물동량 58% 증가…KTZ, 바쿠서 개발 계획 발표 (검색일: 2026-10-18)